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31-200000375036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패권주기론적 해석: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Sun Qiang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패권주기론적 해석: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차 재 권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Sun Qiang

Sun Qiang의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원장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차 재 권 (인)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4

Ⅱ. 이론적 논의 ····· 6

1. 패권 경쟁의 이론적 논의 ····· 6

2. 패권주기론 ····· 10

3.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선행연구 ····· 14

4.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선행연구 ····· 19

5. 무역 분쟁 시각에서 패권 경쟁의 분석 ····· 26

6. 이론적 논의의 소결 ····· 31

Ⅲ.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적 배경 ····· 35

1.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 ····· 35

2. 중국 우위론 ····· 44

3. 미국 우위론 ····· 46

Ⅳ.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 ····· 53

1.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 53

2.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과정 ····· 56

3.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 63

Ⅴ. 결론 ····· 67

참고 문헌 ····· 70

Abstract ····· 7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목 차

<표-1> 패권 주기에 따른 세계 패권의 변화 ····· 11
<표-2> 국가 GDP 상위 5위 ····· 15
<표-3>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국내문헌 요약 ····· 24
<표-4>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국외문헌 요약 ····· 24
<표-5> 중국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변화 ····· 40
<표-6> 안보 위협 요인 설문 조사 결과 ····· 44
<표-7>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 49
<표-8> 최근 5년 간 미·중 무역 상황 ····· 53
<표-9>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 54
<표-10> 미-중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1 ····· 56
<표-11> 미-중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2 ····· 59
<표-12> 미-중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3 ····· 61
<표=13> 무역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64

Ⅰ. 서론

1. 연구배경

미·중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국가 관계이다.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양자 관계를 뛰어넘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키신저 (Henry Kissinger) 는 21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 그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미·중 전략 갈등의 첨예성이 다른 대국과의 전략적 갈등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미·중 관계가 갖는 '촉매 작용'이 세계 다른 국가의 외교 전략에 복잡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2]

기존의 패권 주기 이론에 따르면 모든 패권 체계는 그것이 수립된 후에는 기존 패권국과 이에 대항하는 패권 도전국 간에 패권 투쟁이 나타나게 된다. 패권 국가와 도전국 간의 이러한 갈등은 전체 패권 체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패권 도전국을 제한하고 약화해 자신의 패권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패권 국가가 추구하게 되는 최고의 국가 이익이라 할 수 있다.[3]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중 관계의 굴곡은 미·중 간의 국력 격차의 변화와 반비례한다. 미·중 간 힘의 대비 차이가 클수록 미·중 관계는 더욱 좋아지고, 반대로 만약 중국 국내 사회의 안정, 정치 경제력의 강화 등 미·중 간의 힘의 차이가 줄어들면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중 간 실력 차이를 일정 부분 유지하려는 패권의 보호 전략이라는 미국의 선택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검증하는 동시에 중국을 패권의 도전국으로 삼기 위한 기본 전략의 포석이기도 하다.

---

1) 키신저『미·중 양국은 마땅히 서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
http://www.xinhuanet.com/2017-09/27/c_1121732416.htm (검색일: 2021.1.5.)
2) Zbigniew Brzezinski.『Coping with China』 ,[J] National Interest, Spring 2000
3) Robert Gilpin『The Theory of Hegemonic War』1988

트럼프 정권의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전략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전통적인 미·중 전략 갈등과 미래의 패권국과 도전국 관계의 전략적 그늘은 미·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들어 왔다.[4]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미국과 중국의 상대에 대한 전략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두 강대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미·중 관계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은 미·중 관계의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에 서느냐, 갈등에 가까운 '임계점'으로 가느냐, '신(新)형 대국 관계'를 함께 구축할 것이냐, '신(新)냉전'으로 갈 것이냐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미·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경쟁적 요소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과연 '경쟁적 공존'으로 갈지, 아니면 '패권 경쟁'에 빠질지에 대한 미래 예측은 양국 관계를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더없이 어려운 과제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5]

2018년 7월 6일 새벽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가 본격 시행되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상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6]

미·중 무역 문제는 경제 분야의 '스핑크스 미스터리'처럼 양국 경제 간 무역 관계가 긴밀해지고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처럼 복합적 상호의존이 높아갈수록 무역 분쟁도 늘어나게 된다는 데 있다.[7] 어떤 의미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관계의 문제는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 간 경쟁을 하나로 축소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와 같은 무역 분쟁의 배후에는 단순한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발발은 단순한 국가 간 무역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관계를 뛰어넘는 정치 전략적 문

4) 마이클 브레너"미국의 대중(對中)국 전략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http: //www. guancha. cn/Michael JBrenner/2018 05 24 45 7757. shtml.
5) 吴心伯. 特朗普执政与美国对华政策的新阶段[J]. 国际问题研究, 2018, 3: 80-93. 2018 p45
6) "中美贸易战枪响" 「made of minds 」(검색일: 2021.01.08.)
https://www.dw.com/zh/%E5%9C%A8%E7%BA%BF%E6%8A%A5%E5%AF%BC/s-9058
7) 吴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贸易摩擦分析[D]. 上海社会科学院, 2018.2018 p14

제, 양국 경제정책의 변화 조정 요인과 국제 경제 질서와 규칙적 경쟁의 요인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여러 요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력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패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 연합이 오늘날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미국과 서구 선진국 간 연합 관계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동맹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1) 이들의 동맹 관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2) 군사 동맹은 오버레이가 가장 넓고, 군사력의 투사 능력이 가장 강하다. (3)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가장 호소력 있다. (4) 국제문제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반면 중국이 미국 중심 패권체제의 잠재적 도전자라는 인식은 미국 등 서방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저런 갈등들은 패권국과 신흥국 간의 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역 분쟁은 그러한 갈등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8)]

2. 연구의 목적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국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드러나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잠재적 동인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을 초래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한편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내재해 있는 미·중 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외정책의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정책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

8) 魏光明. 霸权周期理论与中美关系[J]. 当代亚太, 2002 (2): 11-16. p6

향을 분석함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형식적으로는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양국 간 갈등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양국 간 패권 경쟁을 보여주는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며, 양국 간 패권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란 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양국 간 외교를 통한 정치적 경쟁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현주소와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매우 의식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으며, 현존의 국제체제를 사심 없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변형하고 조정해 나가려는 의식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패권을 유지해서 영속화 한 것이야말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패권국의 행위와 선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패권 주기 이론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최근 발생한 미·중 무역 분쟁의 사례를 예로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의 표면적 요인과 잠재적인 심층 전략 동인을 분석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간 역사적 관계의 각 단계에서 미·중 양국이 보여준 패권 경쟁의 내용과 현 단계의 패권 경쟁에서 드러나는 주요 갈등, 국제사회에서의 양국의 우위와 열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방법과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패권주기론 등 패권 경쟁에 관한 국제정치학계의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이론적 배경을 다양한 정치 이론적 관점에서 상세히 종합 분석하고, 패권 주기 이론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패권 경쟁에 있어 양국의 우위와 열위를 비교한다. 본 논문의 제4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 미·중 무역 분쟁에 내재해 있는 심층적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과 구체적인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미치게 될 엄청난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5장은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성과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패권주기론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포함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본 논문이 채택하고 있는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라 할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패권 경쟁에 대한 국제정치학 혹은 국제정치경제학의 이론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패권주기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치와 무역 간의 개념적 관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이론적 논의

1. 패권 경쟁의 이론적 논의

미·중 관계는 단순한 양국관계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성격을 띤다. 양국 간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지역의 문제와 국제 이슈들이 양국관계의 현안이 된다는 점, 또 양국관계의 전개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양국관계는 전략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양국 국력상의 격차로 인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피동적 지위에 처해 있는 불균형한 관계이고, 이러한 불균형성으로 인해 중국은 항상 미국의 정책에 맞춰 자신들의 정책을 조정한다.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여러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중 양국은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국 간 신뢰의 결핍, 특히 서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는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경계는 다시 중국의 대응을 촉발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국제체제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자국의 위치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9)]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국가 관계와 패권 경쟁을 보는 시각이 많다. <以中美關係爲例看結構現實主義理論的兩重性> 논문에서 연구의 초점은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다루고 평가한다. 미국에서 생겨난 구조 현실주의 이론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대외 정책과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1979년 왈츠(Kenneth Neal Waltz)는 『국제정치이론(Theory of

9) 劉芹 中美贸易摩擦产生的深层原因[J]. 国际经贸探索, 2001 (4): 61-64.” p14

International Politics)』을 출판해 전통적 현실주의에 대한 수정을 통해 국제관계이론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체제적 차원에서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경제학적 시각인 행위자-시장구조로 국제사회를 관찰함으로써 국제체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왈츠는 주권국가의 출현과 국제체제의 형성에 따라 체제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지적하며 체제의 구조가 마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국제체제에서 구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며 구조가 지니는 국가행위자에 대한 제약과 영향은 단일행위자가 지니는 그것을 능가한다. 즉 구조는 개별 행위자를 능가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구속성과 권력분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제관계이론 발전사에 있어서 중대한 돌파구이며, 전체 글로벌 시스템의 시야에서 국제 사회를 배려하는 시각이었다.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에서 국가, 국제관계, 개인의 시각으로만 국제사회를 분석하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한 국가가 인정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국제체제의 구조는 한 국가의 국내외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이해하게끔 한다. 그러나 이 이론 또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특정 구조 하의 국가 행위의 기본 원칙에 치중하여 특정 구조 하의 국제행위 변화를 비교할 수 없고, 국제행위의 유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나, 왜 특정 조건 하에서 국가의 국제행위가 여전히 매우 다른지를 설명할 수 없다. 심지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 구조가 스스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일련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현실에 대하여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중 관계만을 놓고 볼 때 구조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성이라는 구조에 근거하여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지만, 결론적으로 미·중 관계가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불가하다. 따라서 구조적 현실주의는 연속적이며, 가변적인 세계 정치의 주요 변화 동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는 점에서 분명한 약점을 가진다.[10)]

10) 孙薇，王以鹏．以中美关系为例看结构现实主义理论的两重性[J]．国际关系学院学报，2005，1(05)：13-17．p40

또 미국의 전통 외교정책을 연구해 보면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사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전통으로, 외교상으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종의 독특한 국가 인식과 행동의 중복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 외교정책에서 민주와 자유라는 가치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민주당원들의 기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자유 민주화를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시했으며, 부시 대통령 2기의 자유민주 수출은 자유주의가 미국 외교정책의 전통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가 미국 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미·중 관계 발전은 자유주의 이념과 주도적 정책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목표 차원에서도,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은 미·중 간에 있어 약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단기간에 봉합할 수 없고 지속해서 미·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Liberal Peace, Liberal War: America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책에서는 주로 미국의 자유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 간의 갈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선 인권 문제에 대한 양 국가 간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며 미국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중국 내 인권 상황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12]. 마지막으로 무역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속에 내재된 자유무역 촉진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국에 끊임없는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 인민폐의 환율 상승 및 정부의 개입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이 역시 미·중 간 분쟁의 한 요인이다.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미국 외교의 중요한 전통이다. 미국 역사에서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미국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주도적 이념으로 발전하여 미국에도 많은 외교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 있어 미국의 자유주의 이론만으로 중국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은 매

11) The Tragedy of Liberal Diplomacy: Democratization, Intervention, Statebuilding (Part I) Beate Jahn

12) John Malloy Owen 'Liberal Peace, Liberal War: America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0 p30

우 어렵다. 이 이론은 주로 현 단계 양국의 발전 패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추세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부족함이 있다.[13)]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주기적 발전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국제관계학계의 화두로 지적되어 왔다. 패권체제의 근본적 이익은 패권국의 권리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국제체제는 항상 변화의 움직임에 있으므로 패권 국가는 물론 패권국의 다른 구성원들뿐 아니라 국가 능력이나 전략적 의도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패권국과 세계의 권력 대비가 바뀌면 기존 국가들이 패권국과 패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패권 이론 학자들은 세계 정치사 연구를 통해 패권국가의 교체가 주기적인 변화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를 패권주기론이라고 불렀다.[14)]

세계 패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패권주기론'을 통해 미·중 양국 관계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숙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패권주기론은 패권국가의 등장과 쇠퇴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세계체제의 장기적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15)]. 영국은 세계 현대사에서 지구의 반을 지배하는 제국이었지만, 한 세기(약 100년)의 시간 동안 패권국의 지위를 누렸다. 그 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였지만, 미국 또한 1960년대 들어 쇠퇴의 조짐을 보였다. 오늘날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또한 흥망성쇠의 운명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패권주기론의 본질과 의미이다.

한 국가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정에 부합하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패권주기론에서는 한 국가, 특히 패권국이나 이에 도전하는 도전국이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직면한 국제 환경을 깨닫고 그에 맞는 국가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3)张纯厚. 当代西方的两种新自由主义——政治新自由主义与新保守主义的对立[J]. 政治学研究, 2010 (3): 105-112. p22

14) Robert Gilpin『The Theory of Hegemonic War 』1988 P24

15) 魏光明 위의 글, p. 14.

2. 패권주기론

모델스키(George Modelski), 로버트 길핀(Robert R. Gilpin) 등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학자들은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국내 경제생활에 기복과 길이가 같지 않은 각종 주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과 유사한 시각에서 국제정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규칙적인 주기가 존재하며 특정 주기에 있어서는 모두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패권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패권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에 있어 안보와 질서라는 '공공재(public good)'를 제공하며, 국제체제의 변화 및 발전은 패권국의 교체를 통한 주기적 특성을 보인다.[16]

패권 주기란 사실상 패권국의 등장부터 쇠퇴에 이르는 역사의 한 과정으로, 이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세계체제의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학자 테런스 홉킨스(terrence k hopkins)와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는 패권 주기의 주요 4단계를 '패권 상승기', '패권 승리기', '패권 성숙기', '패권 쇠퇴기'로 분류하였다.[17]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패권국은 합스부르크에서 포르투갈(16세기), 네덜란드(17세기), 영국(18~19세기), 미국(20세기)으로 변화하며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 왔다. 크리스토퍼 체이스 던(Christopher chase dunn)과 리처드 루빈슨(richard robinson)은 패권이 발전하는 서로 교체되는 단계인 두 가지 보편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한 국가가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단극 중심의 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국체체제에서 권력의 분배가 일어나는 다극 중심의 시기이다. 이때 패권국의 지위와 패권 체제가 붕괴하지는 않지만, 패권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패권 경쟁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8]

---

16) 陈晓晨. 国际政治长周期与体系进化——莫德尔斯基长周期理论再解读[J]. 现代国际关系, 2004 (12): 56-61." 2004 p6

17) Terrence k hopkins. 「Emanuel Waurus,cyclical rhythms and secular trends of the capitalist economy review 」2 NO 3 1979 p 500

18) Trends and new departures in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system

<표-1> 패권 주기에 따른 세계 패권의 변화

	패권 상승기	패권 승리기	패권 성숙기	패권 쇠퇴기	제도의 혁신	쇠퇴의 계기
포르투갈의 주기	1494-1516 인도양과의 이탈리아 전쟁	1516-1539	1540-1560	1560-1580 도전국 스페인 출현	지리적 대발견, 인도 무역 포트 앤트워프	스페인에 병합되어 종교 전쟁
네덜란드의 주기	1580-1609 네덜란드와의 스페인 전쟁	1609-1639	1640-1660	1660-1688도전국 프랑스 출현	해양무역 동인도회사	영국에 대한 전쟁 프랑스에 대한 전쟁 영국 혁명
영국의 주기(1)	1688-1713 루이 14세의 전쟁	1714-1739	1740-1763	1764-1792도전국 프랑스 출현	해양제패, 유럽의 세력 균형 잉글랜드은행	유엔 독립 폴란드 분할 프랑스 혁명
영국의 주기(2)	1792-181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	1815-1849	1850-1873	1874-1914 도전국 독일 출현	자유 무역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월 혁명 독일과의 군비 경쟁
미국의 주기	1914-1945 제2차 세계 대전	1945-1973	1973-2000	2000-2030 도전국 소련 출현	유엔 다국적 기업 비식민화 선지불 개발	

출처: George Modelski and Sylvis Modelski.eds. Documenting Global Leadership Houndmills 1998 p.225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등은 내부적 원인을 국가 쇠퇴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패권국은 이미 패권 성숙기에 있으며, 사회정치경제 발전은 비교적

:educ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1950-1970 eds.J.W meyer and M.T hannan chicago

평온하지만, 점점 자유 활력이 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19] 이때 패권 도전국은 생산 관계 및 생산력의 선진성과 조화성, 기술혁신의 저비용, 국가 상승기에 분출되는 특유의 민족적 구심력, 자부심, 집단의 활력 등으로 성장 속도와 성장효율이 기존 패권 국가를 넘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간의 성장 속도와 성장 효과가 거꾸로 가는 이러한 현상은 패권국의 국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패권 도전국의 국력을 상승시킨다. 결국 국제체제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 변화, 즉 국제체재의 교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20]

새로운 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미국 패권의 도전자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을 적어도 잠재적인 도전국의 위치로 부여하였다. 냉전 종식 이전에는 소련과 소련의 가맹국이 자신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경제 운용방식으로 미국의 패권 도전국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과 미국의 능력 차가 컸고, 미소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 도전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한 중국은 미국이 최대의 패권으로 인정하는 도전국으로써,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타격이나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켜야 하는 현대의 무기가 필요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이라크전쟁 공습으로 약 800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2014년 159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이번 작전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만 13억 달러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다. 현대화 전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최상의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군사적 타격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유리할지도 모른다.[21]

패권국가의 쇠퇴를 불러온 여러 요인 가운데 국내 발전과 국제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우선 패권국이 글로벌 국가이고, 글로벌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환경이 패권국가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이다.[22] 패권국의 내부 발전은 당연히 국제체제를 지

19) Robert Gilipin,「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1.p28
20) Robert Gilpin「The Theory of Hegemonic War」R P30
21) 何自力. 美国发动贸易战凸显其霸权主义本质[J]. 红旗文稿, 2018, 17.

배하고 국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와 구분할 수 없다. 로버트 코헤인(Robert Owen Keohane)은 패권국과 국제체제의 관계를 국제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패권국이 국제 패권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패권국들은 자국에 유익한 국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의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하지만 패권국들은 체제 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이 패권국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패권국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요와 자원 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 지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국제체제 유지비용은 패권국 중심의 국제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패권국의 쇠퇴 및 국제체제의 패권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24]

서구 국제관계학에서는 학파별로 상이한 이론적 가설과 상이한 분석단위를 통해 서로 다른 요소를 강조하지만, 패권체제 및 세계 패권을 논할 때는 공통적으로 패권체제의 등장과 쇠퇴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패권체제의 주기적 발전 변화의 동력은 국가의 권력 경쟁이며, 패권 국가는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1845년 영국과 1945년 미국이 그랬듯이 패권국의 능력이 정점에 달하면 패권의 쇠퇴가 시작되면서 패권국에 도전하는 도전국의 권력 경쟁이 뒤따르게 된다[25].

패권주기론은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비용보다 기대되는 이익이 클 때 국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본다. 즉 신흥 강대국은 기존 패권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패권국의 이익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흥 강대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기존 패권국의 시각에서 볼 때 신흥 강대국의 빠른 성장 및 부상은 패권 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신흥 도전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이처럼 패권주기론의 초점은 패권국과 강력한 신흥 패권 도전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패권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많은 지역

---

22) 王逸舟. 霸权· 秩序· 规则[J]. 美国研究, 1995 (2): 43-68. p44。
23) Robert keohane,『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mony,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39
24) Robert keohane, 위의 글, p. 45 1984
25) Robert keohane, 위의 글, p. 39 1984

연구에서의 결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26]

이와 함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차원의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19세기 후반 일본 및 독일의 부상과 패권 도전처럼, 현재의 패권 도전국을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의 패권 지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정치권의 우익인 대중(對中) '블루팀'과 '드래곤 슬레이어(Dragon-slayer)' 즉 대중 강경파였다.[27]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주류 인사들은 중미 관계가 전례 없이 복잡한 관계이며,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 윈-윈(win-win) 정책, 이른바 판다 포용자(Panda-hugger)와 같은 대중 유화파의 대중 우호 정책을 펼칠 경우, 양국은 결국 세력 균형의 함정이나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8].

3.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선행연구

가. 중국의 부상과 초강대국화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의 최대 변화 요인으로서, 막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종합 국력은 급상승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수십 년째 연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규모 면에서 2010년 일본을 제쳤고,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구매력 기준 실질 GDP는 이미 2014년 미국을 추월함)가 되었다.

---

26) Robert Gilipin,『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p54

27) 魏光明 위에 글 p16

28) Kim Chan-young「China and the United States Get Out of the Historical Trap」 2010 中國人民大學國際關係學院

<표-2> 국가 GDP 상위 5위

순위	국가	년도	GDP(달러)	세계 GDP의 비중
1	미국	2019	21조 4,300억	24.4118%
2	중국	2019	14조 3,400억	16.3362%
3	일분	2019	5.08조	5.7880%
4	독일	2019	3조 8,600억	4.3977%
5	인도	2019	2.87조	3.2676%

출처: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증강으로 이어졌고, 중국의 군사비는 2016년 기준 2,152억 달러로서 같은 연도 미국의 6,1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였다. 또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성장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 즉, 소프트 파워(soft-power)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중국 종합 국력'의 강화와 확대를 추진하였다. 중국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수립을 요구하며,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난징조약(1842년)의 체결과 함께 시작된 '치욕의 세기(a century of humiliation)'를 뒤로 하고,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여, 21세기를 '중국의 세기(a Chinese Century)'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29)]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언행의 보폭을 확대하였다.[30)]

나. 미국 패권력과 대외전략의 변화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승리 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으나,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이 안팎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이 미국의 재단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면서 미국은 단극 체제의 패권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독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미국도 스스로 자만하여 미국 일방주의 및 '과다 팽창(overstretched

29) 中國軍網 http://www.81.cn/ (검색일: 2021.01.08.)
30) 김동성, 정성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2016 p58

expansion)'의 오류를 노정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현재 또는 잠재적 대국들의 국력 신장과 회복으로 군사력·경제력 등과 같은 경성 권력 즉 '하드 파워(hard power)' 측면에서도 상대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며 군사력 또한 '동아시아 전역(East Asian Theatre)'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유지에 있어 최대의 위협으로 나타났다.[31)]

미국 대외전략의 기조가 기존의 국제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선회할 경우, 미국의 패권력은 약화하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32)]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근까지 국제주의적 대외정책을 전개하면서 대외전략의 기조로 선택적 관여와 적극적 개입을 채택 -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방치하였다는 반성 하에,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 - 하였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이후 선택적 관여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대외정책을 추진하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적극적 개입 전략도 병행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동맹국들의 안보는 동맹국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외전략 기조를 표명 - 즉,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전략적 자제와 역외 균형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미국 대외전략의 기조가 기존의 국제주의/개입주의에서 신(新)고립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 하였는데, 미국 대외전략의 기조 변화는 중국의 동북아 역내 패권 장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로서, 동북아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33)]

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

중국은 3대 핵심 이익 영역으로 '국가 체제 유지', '주권과 영토 보호', '국

---

31) 赵金龙. 美国 TPP 战略的动机及其对东北亚经济一体化的影响研究[J]. 东北亚论坛, 2012 (6): 18-26. p44

32) 赵金龙 위의 글, p. 46

33) 서정경, 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 (大國外交)'와 미·중 무역 분쟁[J]. 국가전략, 2019, 25(1): 33-62.

가 통일 추구'를 내세우며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전쟁 불사도 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국가 체제 유지'는 공산당 일당 지배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국 공산당의 안위 확보와 중국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권 유지는 가장 큰 목표이자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주권과 영토 보호'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타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중국이 자국의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는 육지와 바다에 대한 영구적 소유와 지배가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통일 추구'에서는 대만 문제가 핵심으로서 대만의 독립 저지 및 흡수 통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든 간에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5]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패권 유지로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최대 과제이다. 미국은 동북아 역내 패권 유지라는 목적 하에, 미·중 관계 관리 및 중국 견제, 대만해협 안정과 대만 보호, 남중국해 항해자유권 고수, 북한 비핵화, 미·일 동맹 유지와 강화, 자유·공정 무역 질서 구축 등을 주요 국가 이익으로 설정했다[36].

첫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여'와 '대결'을 對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미·중 관계 관리 및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나 대만 공격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 셋째,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면서 남중국해의 항해자유권은 미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라고 선언 넷째, 미국은 자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해소와 핵확산과 역내 핵 도미노 방지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극력 반대 다섯째,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질서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미·일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추진 여섯째,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무역 질서가 기존의 '자유 무역'에서 '자유·공정 무역'으로 전환되도록 압박이다.

---

34) 侯远长, 王增杰. 中国国家核心利益探析[J]. 中州學刊,, 2014(1): 15-19. p16
35) 侯远长 , 王增杰 위의 글, 2014
36) 赵金龙 위의 글, p. 51.

전쟁 불가론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에 국익의 충돌 지점이 다수 존재하고 또 세력 전이가 일어나더라도, 미·중 패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다,[37)]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미국도 중국과의 무력대결은 모두 패자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한 회피하고자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일종의 공동운명체로서 양국 간 평화는 공동 번영을 가져오지만, 전쟁은 공멸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38)] 미국과 중국은 각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 1당 지배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자신의 체제가 보전되는 '제로섬(zero-sum)'의 상호 대척 관계는 탈피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회 간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촘촘하고 중층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최대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타격이나 경제적 제재로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현대 무기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쟁 공습으로 약 800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2014년 159만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해 이 작전에만 13억 달러 가까이 들었다. 현대화 전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핵무기의 존재에 따른 '상호확증파괴(MAD)'가 미·중 양국 간에 기능하는 한 전면적인 전쟁은 불가하며, 미국과 중국 간 세력 전이가 이루어져도 같은 이유로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최선의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군사적 타격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유리할 수도 있다.[39)]

본 연구의 논의에 앞서 양 국가의 투표 행태 논의 역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민주적 경쟁 시스템이 없는 권위주의 국가, 독재국가에서도 정치적 경기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행태나 정치적 경쟁 여부는 간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이 정치적 목적

37) 赵金龙 위의 글, p. 53-p. 54
38) 侯远长 , 王增杰 위의 글, p. 22.
39) 김동성. (2018). 김동성.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J]. 이슈 & 진단, 2018 (317): 1-34., ,

달성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 요인 변화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함을 전제로 한다. 이 가운데 회고적 투표의 경우 현직자의 업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엄기홍 2009). 정치적 경기순환의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유권자의 행태가 비합리적이라 근시안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김대진 2012). 단순히 용어의 선택 측면에서 합리적/비합리적으로 구분되어 두 이론 사이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회고적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에 대해 정책적 산문에만 관심을 둬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업적만을 평가한다(엄기홍 2009)는 점에서 두 사이의 관계를 불리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경기순환 역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제 상황과 무관한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유권자는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비롯한 정치적 결정권자들 역시 정치적 경기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다. 반면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나선다면,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항복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투표행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선행연구

'美中貿易戰 : 原因, 形式以及影響因素'이란 문장에서 저자는 미·중 무역 분쟁의 발전 양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을 주요한 여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중국이 각종 불공정 무역 조치를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5,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공장 폐쇄, 노동자 실업 등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둘째는 법률전쟁 모델이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 대한 법적 기반과 중국의 대응이다. 1974년

무역법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전쟁의 법적 토대이며, 무역전쟁에서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대미 수출품에 과세하는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301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바탕으로 대중(對中) 무역조사를 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가적 위치에서 중국을 재정의하려는 위상 전쟁 모델이다. 하나는 중국의 '개도국'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특별대우와 이점을 얻고, 마땅히 져야 할 더 많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개도국 신분을 바꾸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등 중위소득 국가에 더 많은 약속과 책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는 기술전쟁 모델이다. 미국이 스스로 무역전쟁을 기술전 측면까지 확대하면서 기술전으로 대중(對中) 압박이 거세지고 대(對)중국 기술우위 확대로 이어졌다. 다섯 번째는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선진경제를 보호한 체, 국유기업 재산권 인식 경쟁에서 세계 무역 기구 개혁, 생산 능력 과잉,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회사들 간의 분쟁 패턴으로, 대(對)중국 무역전쟁에 발맞춰 미 정부가 특정 중국 업체들을 정밀 타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ZTE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2018년 4월 미국 상무부는 ZTE에 대한 통신 수출 권한 금지령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무역 분쟁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와 전략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두 나라의 발전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추측하고 발전시켰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중의 경제 체량으로 볼 때 직접적인 무역 분쟁 원가는 어느 쪽에도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경제비용 외에 다른 경제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지표가 더 관건이다. 하나는 미·중 양국의 단기적인 경제성장이다.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높다면 미국 정부의 무역 분쟁 동력은 더 충분해질 것이고, 성장 속도 하락이 분명해지면 무역 분쟁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금융시장의 표현, 특히 주식시장의 표현이다. 무역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던 서민과 회사들도 증시 상승으로 복지 손실을 일부 상쇄해 트럼프를 설득할 동력이 부족했다. 무역 분쟁의 그늘에 가려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트럼프의 대중 무역 분쟁은 탄력을 받고, 미국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 트럼프의 대중 무역 분쟁 동력이 부족해져 무역 분쟁은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요인 면에서는 양국 지도자의 교류에서 출발하여 양국 원수가 미·중 관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미·중 두 나라 원수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밀접하게 연계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만약 미·중 두 나라 원수가 서로 교류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대립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다.[40)]

미·중 무역의 원인과 형태는 비교적 매우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독자에게 무역 분쟁의 원인과 발전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논문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 전망에 있어서 미흡한 점, 예를 들어 미국의 선거제도와 같이 트럼프가 2018년 대중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41)] 또한 향후 미·중 무역 분쟁 추세는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요소가 더욱 고려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42)] 대중 무역 분쟁이 공화당과의 경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강력한 동력이 무역 분쟁, 무역전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이며, 무역 분쟁이 선거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중 무역 분쟁의 동력이 부족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미 대선 이전의 미국 전략 학계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어느 쪽이 당선되든지 간에, 접촉과 협력 위주의 대중(對中) 관계 모델은 일단락되고 '중국 패권의 도전'에 대한 대비가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중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43)]

'미·중 무역 분쟁-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라는 연구에서는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실질적 영향을 논의했고, 특별 기고문에서도 미국 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미국 일부에서는 보호주의 방식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대에 의존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자유무역 위주의 노선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협조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선의의 공동 대

40) 宋国友. 美中贸易战：原因，形式以及影响因素, 2016(1): 15-19. p16 p50
41) 谢静楠 위의. 글. p. 53
42) 宋国友 위의. 글. p. 60
43) "Biden could struggle with Taiwan issue rocking U.S.-China relations, says political risk expert"
www.cnbc.com/ (검색일: 2021.01.08.)

응으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글로벌 수출,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감세 및 금리 인상 등 정책적 조치를 통해 제조업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징벌적 관세와 기술장벽 설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 왔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혁신을 선도하는 제조업의 전 산업 구조 모델을 미국에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내 농업, 제조업, 노동자, 소비자 분석을 통해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교역 국가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의 산물이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미국이며, 미국의 보호주의 관세정책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자유무역주의는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중국의 무역 패턴이 미국의 발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이 글은 자유무역이 보호주의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을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차이가 크고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평가받는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금융통신 전문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ASEAN이 부분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현재 기본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무역에 대해 철저한 의지가 없는 '공정무역' 정책으로 자유무역의 폐해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을 연구할 때 쌍방향적인 고려가 더욱 적절한 것이다.[45)]

"the US-China Trade War and China's Strategic Future"이라는 글에서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발발 원인과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 내부 구조를 분석하면서 매파(강경주의자)와 비둘기파(평화주의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초 중국 국방부는 공식 홈페이지

44) 이왕휘.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J].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2018, 61(4): 77-116.
45) 이왕휘. 위의. 글. p.40

에서 은퇴한 윤탁(尹卓) 해군 대장을 인터뷰했다.[46] 정치지도자의 입장을 직접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외교 국방 정책을 창출했는데,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970년대 후반에 제시했던 겸손을 강조하는 정책과 모순된다. 이 중국 지도자는 1989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발전할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의 재선과 '대만 탈환'을 앞두고 중국 내 매파 사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도 이번 논쟁에 대해 논평하고 있어 견해차가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매파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나라의 경제적 성취는 지식 엘리트와 상당수의 인구에 대한 매파적 관점을 강화시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출판물과 게시물이 한 나라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이나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국은 이러한 대중의 압력에 저항하는 데 둔감해 왔지만, 그들의 이전의 방법을 어느 정도 조정하였다. 학계에서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그늘에 숨자'는 구호가 현재 변론 중이다. 한 가지 시각은 이 나라 역사의 특정 단계에서 작용했지만,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더 강해지는 현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7]

사실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지지 국가가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강경책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인도,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18년 9월 중국의 러시아 S-400 방공시스템 구매에 대해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는 국내 매파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 내에서 매파 세력이 주류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대해 가진 경계심을 완화하고 對미국 정책의 파트너로 다수의 주변 국가들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48]

---

46) Lukin A. The US-China Trade War and China's Strategic Future[J]. Survival, 2019, 61(1): 23-50.p13

47) Lukin A 위의 글, p. 213-p.15.

<표-3>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국내문헌 요약

	저자	문헌	연구방법	주요변수	결과
1	악단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회귀분석	양국의 GNP 양국 간의 거리	미국은 중국 찻잎 수출에 대한 기술적 무역 장벽은 중국 찻잎 수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정민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문헌연구		중-미 무역 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이다.
3	송백훈 이창수	미·중 무역 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GTAP 버전 10 데이터베이스는 57개 산업과 141 개 권역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김창현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문헌분석 사례연구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對중국 수입 확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유도, 자국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기술 수출을 규제하려는 의도이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5	김수형	중미 무역전쟁은 세계에 무엇을 가져올까	비교연구 사례연구	과거 미국발 무역전쟁 사례, 트럼프 무역전쟁과의 비교	트럼프의 통상전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표-4>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국외문헌 요약

	저자	문헌	연구방법	주요변수	결과
1	Xiang Weixing	美國的匯率政治與人民幣匯	SVAR 모델 분석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미·중 금융의 상호의존 정도에 대한 실

48) 刘一建. 中国未来的海军建设与海军战略[J]. 战略与管理, 1999 (5): 96-100. p77

	(項衛星) Wang Guannan (王冠楠)	率之爭			증 연구를 실시하여, 비대칭적인 미·중 양자 자본순환에서 미국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모두 중국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Song Guoyou (宋國友)	中美經貿關係的新變化與新趨勢	무역구조 분석		미국은 중미 경제가 상호 의존적인 비대칭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미래에 상대적인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얻기 위해 미국과 경제 무역 거래를 강화해야 한다.
3	KalJ .Holsti	Taming the sovereigns : institutional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사례연구		상호의존의 정도가 점점 더 증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보다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후자가 국제협력에 열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의 책임이 적은 문제 영역으로(예를 들어 오염 관리 등이다.
4	Chen Hong (陳宏) Ma Xue Jun (馬學俊)	中美貿易摩擦的經濟影響分析－－基于GTAP模型	연산가능 일반균형	무역이 중단되는 시기	GTAP 모델의 폐쇄조건 설정을 통한 중미 무역 분쟁의 단기적 경제적 영향과 장기적 경제적 영향 시뮬레이션

5	Ju Jiandong (鞠建東)	中美貿易的反比較优勢之謎	패널분석 회귀분석	산업 생산비용, 운송비용, 관세, 자본	미국이 우세한 분야에서 대중(對中) 수출이 적다는 것을 발견한다.

5. 무역 분쟁 시각에서 패권 경쟁의 분석

2018년 6월 15일 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 6일부터 1차로 340억 달러(약 818억 원)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2차로 16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49] 6시간 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500억 달러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관세를 매기자는 의견을 냈다. 3차 협상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항에 근거한 보호주의 깃발을 사용해 무역전쟁의 불씨를 지폈고,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의 3분의 1이 이에 해당되었다. 불평등과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미국은 패권국가의 이점을 살려 시장의 다른 국가에 보호무역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50]

미·중 무역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토대 위에 서 있고,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무역액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1979년 24억5000만 달러, 2017년 4,297억 달러의 대미 수출, 1,539억 달러의 수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내 행정과 입법의 이견과 이익집단의 분화로 중국은 시장경제의 지위 확인 등에서 미국의 제지를 받곤 했다. 이번 미·중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도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

49) CHINA DAILY “Is this the beginning of a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ttp://global.chinadaily.com.cn (검색일: 2021.01.07.)
50) 宋国友 위의. 글. p.5

았다. 하나는 적자에서 오는 오해다. 미 상무부는 2017년 미국의 대중(對中) 상품 무역적자가 3,752억 달러로 중국 측 통계가 집계한 2,758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둘째, 주요 적자는 과세 내용상 회피했다. 미국이 적자를 잡기 위해 과세하는 주요 품목은 기계공작, 기계, 전기설비, 항공우주,설비, 광학, 의료 설비 등인데 비해,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방직 의류 수공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청문회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신 제재 리스트에서 가장 액수가 큰 단일 품목인 컬러tv와 관련 제품 등 515개의 과세 대상 상품을 빼냈다. 중국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리총회 2차 회의에서 항소기구 구성원 전형 미국의 232조 아래의 알루미늄 제품 조치 1974년 무역법 301조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중국의 의제에 대해 미국 측은 소추 기구가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서를 다시 쓰고, 분쟁 해결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WTO 법률을 만드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중국이 이번에 제안한 232조 합의서는 적절한 WTO 규칙에 근거할 근거가 없고, 중국이야말로 일방주의자로 세계무역기구의 다자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51]

무역 분쟁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략 수립에 동기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이 되는 수많은 원인 가운데 미국의 패권 개입, 그리고 시장에서 부의 분배능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2]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변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대중 무역 분쟁의 한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우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했던 일본, 유럽에 대한 과거 미국이 가졌던 우려와 동일하다.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도 일본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대일 투쟁은 미국의 대일 정책의 주요 주제였다. 미일 무역 분쟁과 함께 플라자 협정의 체결로 결국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상태"에 빠졌다. 비교 우위의 시각에서 볼 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중국의 GDP 5조 1,110억 달러 12조로 증가해 경제 규모가 억달러 증가한 2238 했고 2010년 3배를 넘어섰다. 일본이 세계 2위 경

51) 宋国友 위의. 글 .p.60
52) 魏光明 위의. 글 .p.19

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까지 약 10%를 유지한 뒤 매년 거의 7%씩 성장해 세계 평균(3.9%)보다 높다. 2014년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된 중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경제에서 약 5~7%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12%로 성장했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전 미국 대통령 수석 고문은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적이며, 미국-중국 간 경제전쟁은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말했다.[53]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미국 통신사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년 5월 초엔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수입 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19 개막 직전에 서명할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까지 제시한 바 있다.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장비 도입금지 명령에 서명하진 않았다.[54]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내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중국 통신장비 경계령을 발령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자국 기업들에만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도입 자제를 요청했다. 미국이 이런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국가 안보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맹'에 선뜻 가담하려 들지 않았다. 특히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미국의 요청을 일축했다.[55]

중국의 IT 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R&D 지출에 있어 미국은 현재 세계 1위이지만 중국의 가파른 추격으로 2019-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1위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R&D 투자 규모는 2014년에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특허 출원 수에 있어 2018년 기준 332만 건으로 전 세계 특허의 46.4%를 차지하여 2위인 미국(18%)과 3위인 일본(9.4%)을 압도하고 있으며 논문 출판에서도 2013년부터 2018까지 연평균

53) 邓芳. 从中美贸易摩擦看美国贸易救济制度对我国的影响和启示[J]. 湖南财经高等专科学校学报, 2005, 21(6): 6-9.
54) 宋国友 위의. 글. p.65-p. 68
55)王雅琪 从华为事件看中美贸易纷争本质, 2019(1): 15-19. p16 p20

성장률 12.95%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선두인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대표기업이 부재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5G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56)]

<미·중 갈등으로 본 기술 패권 전쟁 :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가?>연구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왜 화웨이만을 집요하게 제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미국을 앞서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중국 IT 산업의 부상과 화웨이로 대표되는 혁신 기업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의 원인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특히 화웨이의 경우 차세대 핵심 기술인 5G에 기반한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패권 확보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미·중 갈등을 거시적인 정치·경제적인 설명을 제시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면 해당 본 연구를 통해 미시적으로 중국 혁신 기업의 성장이 일으킨 파장이 미·중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거시적 접근은 미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중국의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초유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이 사안을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혁신 기업(화웨이)의 급속 성장이 일으킨 파장이 미·중 기술전쟁의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차세대 기술로 대표되는 5G 기술의 중국 잠식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중심에 화웨이라는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화웨이의 5G 관련 압도적인 기술력은 미국의 기술 패권국으로의 주도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화웨이 전면 제재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57)]

미·중의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감시키는 요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한쪽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전략인지 따져봐야 한다. 중

56) 王雅琪 위의. 글. p.26
57) 이효빈, 손원배, 박문수. 미· 중 갈등으로 본 기술패권 전쟁: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가?[J]. 정치정보연구, 2020, 23(2): 349-374.

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국가로의 부상은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시스템에 녹아든 것이 분명하고, 중국의 성장은 미국이 수년간 추구해 온 큰 전략의 일부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증가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체 발전전략을 실시한 결과 국내체제를 충분히 조정하고 국제자원을 흡수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중국의 발전은 내생적이며, 외부 환경 변혁에 직면했을 때 거대한 조정 공간이 존재한다. 또 개도국으로서 우선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서구 국제관계 이론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발전의 권력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낮고 미국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 분쟁을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력과 의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다.[58)]

무역 분쟁은 국제 경제 관계의 한 형태였지만, 갈수록 국가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미·중 관계에서 오랫동안 경제무역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돼 온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무역 분쟁의 성격 변화, 미·중 관계 격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무역전이 다른 분야로 넘어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미·중 관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 세계 최대의 두 경제권인 미·중이 전면적 무역 충돌로 치달으면 글로벌 경제성장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다.[59)] 로버트 배로(Robert Barrow)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은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2018년 9월 27일 WT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9%, 2019년 3.7%, 4월 중순 WTO 보고서는 2018년 화물 무역 증가 속도를 4.4%로 예측해 불과 5개월 만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60)] 미·중 무역 관계가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에 박혀 어느 한쪽의 무역 지위를 줄이거나 늘리면 국제경제의 면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간 범주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심도 있는 영향을 지역과 국제 시스템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8) 程卓. 浅谈中美贸易摩擦的现状和发展趋势[J]. 中国科技信息, 2005 (6): 42-43. p23
59) 程卓 위의 .글 .p.25
60)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https://www.wto.org (검색일: 2021.01.08.)

경쟁적이고 충돌적인 미·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제협력의 공동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중의 경쟁적 증대로 경제무역 관계는 갈수록 권력투쟁의 의미를 띠게 됐지만, 미·중 관계의 미래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해석력이 떨어진다. 논문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국제경제 관계의 구성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은 다른 나라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무역의 발전은 중국 권력 성장의 주요 원천도, 미국의 상대적 전력의 약세 탓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을 조정의 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세계 패권을 다시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61)]

6. 이론적 논의의 소결

상술한 패권 경쟁 및 무역 분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권국의 무역정책은 패권주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패권국의 번성하는 시기에는 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정책을 펼치게 된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집중하여 이를 생산하고 타 국가가 생산한 상품과 자국이 생산한 상품 간의 교환을 통해 자국 내에서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 오게 된다. 이는 결국 국력과 관계없이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62)]

둘째, 패권이 쇠퇴하는 시기에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 무역정책의 근간은 중상주의, 토마스 망(Thomas Maeng)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상업주의 이론[63)]이다. 무역흑자가 한 나라의 장기적 부유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61) Wang Y. THE US-CHINA TRADE WAR AND HEGEMONIC COMPETITION[J]. Hegemony and World Order: Reimagining Power in Global Politics, 2020: 105. p 56

62) 铁殿君, 李华. 论李嘉图的“比较优势理论”[J]. 安阳工学院学报, 2010, 9(1): 59-61. 2010 p6

63)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

강조하는 것이 핵심 관점이다. 통화가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상공업의 번영을 촉진하며, 무역흑자를 가져와야 부(富)가 넉넉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부가 넘쳐도 스페인처럼 전부를 소비할 수 있다. 영국 패권의 쇠퇴기에 자유무역정책을 버리고 중상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정책으로 회귀했다[64]. 반면 미국은 1970년대 초 패권이 쇠퇴한 지 30여 년 동안 무역자유화를 지속했다. 이 시기에 달러 주도의 국제통화체제가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가 금융 등 서비스업 발전을 자극하였다. 역대 미국 정부의 탈공업화 및 무역금융 자유화 정책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미국의 우위가 사라지면서 막대한 무역 적자가 장기화 되었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엄청난 무역적자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막강한 군사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65]

셋째, 트럼프 집권 후에도 사실상 미국의 재공업화를 고집했던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무역 정책을 바꿔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상승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국내 기업을 살리고 자극해 해외에 기업을 유치한 미국 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달러 패권과 미국의 방대한 시장을 앞세워 미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상대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는 지금껏 미국이 유지해온 세계 다자무역체제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66]

닉슨(Nixon)은 과거 패권이 쇠퇴했던 것과는 달리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 놓이면서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

육·예술·사상·이데올로기·도덕 및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최대한의 이윤 실현의 수단이 된다. 본래 이윤 추구의 장이 될 수 없는 의료·복지·종교 등의 영역으로까지 도의적 한계를 넘어서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 경향을 상업주의라고 한다. 현대에는 이 경향이 거대화한 매스미디어와 결합하여 사회기구·인간행동·문화구조의 심층부까지 침투하고 있다. 영리주의라고도 한다.

64) 彭红斌. 国际贸易保护主义理论与政策演变[J]. 延安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2, 34(1): 39-43. 2010 p48

65) 彭红斌 위의 .글. p.50

66) 任靓. 特朗普贸易政策与美对华" 301" 调查[J]. 国际贸易问题, 2017, 12: 153-165.2017 p56

다[67]. 트럼프 시대에는 중국과의 유례없는 무역 분쟁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큰 동요를 불러올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이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핑계로 대중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정작 관심사는 미국의 세계 패권적 위상 유지이며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는 한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역 분쟁은 국제정치경제관계의 한 유형이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강대국 간 관계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패권 경쟁의 유인이 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미·중 관계의 핵심은 미·중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이었지만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양 국가 간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산하며 미·중 관계 갈등 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현 단계의 무역 분쟁 사례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패권주기론을 통한 현 미·중 관계의 분석은 미비하다. 현재 미·중 간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과 나아가 패권 경쟁의 양상은 현시점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권국과 패권도전국 간의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권주기이론을 출발점으로 최근 발생한 미·중 무역 분쟁 사례를 통해, 무역 분쟁 발생과 관련한 표면적 요인 및 잠재적이고 심층적인 전략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시기별로 미·중 패권 경쟁의 각 단계별 현상과 주요 갈등을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 국가가 지닌 강점과 약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 양국 간 패권 경쟁 및 충돌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경제 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추구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결국 양 국가의 무역 분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분석이 아닌 국제체제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

67) 刘自强. 布雷顿森林体系崩溃的历史影响新论[J]. 理論月刊, , 2009(3): 153-155.009 p6

에서의 패권 주기론을 통한 미·중 관계의 분석을 통해 미·중 간 갈등의 증대는 경제무역 관계를 넘어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패권 투쟁적 의미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패권 주기론으로 현시점에서 국가 간 관계와 국제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그러기에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에 따른 강대국 간 충돌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길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Ⅲ.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적 배경

1.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

가. 미·중 근대 외교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자, 전 세계는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휘하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며 냉전에 접어든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소련은 내부 모순으로 무너져내렸다. 또한 전후 복구에 성공하며 미국의 경제 패권마저 위협했던 일본 역시 플라자 합의 이후 진행된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외에도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미국과 양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EU 역시 지지부진한 통합과 모호한 정체성 등으로 인해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1세기가 시작할 무렵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등 전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며 단극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반면 중국은 중일전쟁 이후의 혼란상 속에서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손에 쥔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국제 지위의 상승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나 당대 중국의 최고 권력자이던 마오쩌둥(毛澤東)은 내부로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정책적인 실책을 연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산주의 우방국인 소련과 노선 차이를 빚고 베트남과의 갈등으로 중월전쟁을 벌이는 등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된다.

이에 1970년대 미국은 중소 결렬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에 접근하여 미·중수교를 이루어내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된다.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鄧小平)은 미·중 수교 이후 공산권이 연이어 붕괴하던 시기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 7~10% 전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시장경제에 편입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을 신

흥국 정도로 인식하였다. 많은 인구와 영토를 가지고 공업이 빠르게 발전되었지만 동아시아 역내 라이벌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던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논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68] 반면 압도적인 패권을 자랑하던 미국의 경쟁자로는 2002년 유로화 도입을 전후로 해서 유럽연합이 훨씬 더 주목을 받았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기존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매몰되고, 경제적 지위 역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는다. 기존의 단극 패권이 점차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굴기(和平崛起)란 국가 슬로건 안으로 야욕을 숨긴 채 조용히 기반을 다지며 미국을 빠르게 추격해왔다.[69]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주류 시각은 중국 역시 소련처럼 붕괴할 것으로 생각했다. 소련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임은 물론 경제 발전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충격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 속도를 높였다. 이에 미국 정부 등의 일각에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냉전(冷戰)적 사고가 등장한다. 미·중 관계가 지속해서 요동치며 20세기 후반 미·중 관계는 매우 취약하고 긴박해진 것이다.[70]

대표적으로 1994년 10월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은 사전 통보 없이 중국 영해 경계를 순찰하고 중국 영해로 진입하여 원양훈련을 마친 중국 해군 원자력 잠수함을 추적했다. 이에 양국 전투기는 한때 공중 대치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중 황해 대치 사건이다.[71]

또한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관계 역시 미·중 사이에서 민감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상하였다. 양안 문제는 오늘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이다. 90년대 초 국제구도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이용하여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1992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였으며[72], 이어진 클

68) 乐黛云. 美国梦· 欧洲梦· 中国梦[J]. 社会科学, 2007, 9: 159-165.
69) 王巧荣. 中美关系 40 年: 历程, 特点及经验启示[J]. 桂海论丛, 2019, 35(6): 64-70.
70) 任远喆, 王戴林. 中美建交 40 年的 40 件大事[J]. 世界知识, 2019 (1): 11. p43
71)"中美黄海对峙事件的起因"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2021.01.08.)

린턴 행정부에서도 대만과의 실질적 연계 강화하였다. 특히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면서 미·중 관계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여 중국은 대사 소환을 포함한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73]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초기 인권 문제를 중국의 최혜국 대우와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클린턴 행정부는 재선 이후 비교적 실무적인 대중(對中) 정책을 통해 완화된다. 국가 상호 방문을 재개되어 1997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초청으로 12년 만에 미·중 공동 성명이 발표한된다. 성명은 미·중 간 공통점과 입장 차이점이 있음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서로 중대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과 진솔한 정신에 입각해 도전할 기회를 갖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담았다. 쌍방은 미·중 3개 공동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힘을 합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진 1998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졌다. 양국 원수의 상호 방문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촉진했다. 다만 상호 간의 방문에도 양국 관계는 다시 기복을 보였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 내전 파견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이 폭격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의 관계는 1999년 겨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합의와 중국의 영구적인 최혜국 대우 문제를 해결한다.[74]

이러한 관계는 클린턴 퇴임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도 이어진다. 부시 대통령은 경선 과정과 집권 초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충돌하는 등 미·중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75] 하지만 미국을 테러와의 전쟁 수렁에 빠뜨린 9.11테러가 역설적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가속도를 붙였다. 2001년 10월과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의 두 차례 방중을 통해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배경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가 미국의 외교 전략 중심으로의 부상에 있다. 중국과의 대테러 문제에 대한 협력이 진행되어 미·중 관계 안정에 주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

72) 侯远长 , 王增杰 위의 글. p.40
73) 侯远长 , 王增杰 위의 글. p.41
74) Zi-guang Z.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and Taiwan Issues [J]. Journal of Chengde Teachers' College for Nationalities, 2007, 1. P8 - 10
75) 任遠喆 王戴林 위의 글. p.46

이후 양국은 2008년 말까지 60여 개의 다양한 교류 기구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전인대)는 미국 상원(上院)과 공식 교류 체제를 수립했다. 1999년 전인대와 미국 하원은 교류 체제를 구축하여 양국 입법 기구의 체계화된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76] 하지만 여전히 인권. 종교. 티베트 문제 등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은 지속하였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의 잠재적 목표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되었으며, 미국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다.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였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균형 있는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여 2009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관계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관계를 중시하였다.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던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중 관계는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78]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관계는 점차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른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기하며 미·중간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이익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는 후진타오 집권기에 제시된 개념이지만,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라 할 수 있다.[79]

신형대국관계의 구체적인 개념은 '미국 주도의 현재 질서를 지지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동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출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차창훈 2014) 과거와 달리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76)「東方新聞網」
http://news.eastday.com/eastday/news/news/node4938/node7550/userobject1ai27176.html (검색일: 2021.01.05.)
77) 侯远长 , 王增杰 위의. 글. p.50
78) 任遠喆. 王戴林 위의. 글. p.56
79) 한승호. "시진핑이 강조한 '신형 대국 관계'의 실체는." <연합뉴스> 2013년 6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609022300089 (검색일:2020년 01월 05일)

이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펼친다. 이는 기존의 동맹인 일본과 호주, 한국 등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군사적으로 동맹국 이외에 ASEAN에 대한 무기 판매가 증가하기도 하였다(김석우·장숙인 2016).[80]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동맹과 협력에 근거하여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81] 본격적인 견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집권기 미국의 정책 중심이 중동 지역에 머무름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미·중 관계는 트럼프 집권기를 맞이한다.

나. 현 단계 미·중의 패권 경쟁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기준 GDP가 20조 달러에 육박하며 연방정부 방위비는 6,23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로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8,000억 달러, 무역적자는 6,21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67%에 달하는 4,1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5>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5년 무렵 중국의 증시 폭락 및 외환 보유고 급감 사태 등 당시 일시적인 사건 이외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80) 김석우, & 장숙인. (2016).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분석. 아태연구, 23(4), 5-31.
81) 이성우. (2014). 아시아와 중국의 아시아. 국제정치논총, 54(2), 243-271.

<표-5>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변화

(단위: 억 달러)

년도	미국 상무부 데이터	중국 상무부 데이터
1991	126.9	-14.1
1992	182.6	-18.5
1993	227.0	-3.1
1994	294.9	62.7
1995	338.1	74.9
1996	395.2	85.9
1997	497.5	105.3
1998	569	164
1999	686.7	210.2
2000	838.1	224.7
2001	830.5	297.4
2002	1030.6	427.2
2003	1240.7	586.1
2004	1619.4	802.7
2005	2019.5	1141.7
2006	232.5	1442.6
2007	2562	1633

출처:중국 상무부와 미국 상무부

트럼프의 집권 이후 데마고기적인 선동을 하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중국 측에게 갖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트럼프와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내놓은 주장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2)]

1.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은 주로 중국이다.
2.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과 환율 조작을 진행하며,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3.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시장-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한다.
4. 중국 기업은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이란 및 북한과 장사를 한다.

이러한 주장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 특색의 축적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트럼프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시진핑과 중국 정부는 지연 전술을 펼쳤다. 지연 전술이 가능한 것은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일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82) 이재현.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J]. 진보평론, 2019 (81): 196-230, p198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었지만,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방 예산 지출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개발 능력과 스텔스 비행기 제작 능력, 대륙간 탄도탄 제조 및 발사 능력, 항공모함 건조 능력 등 각종 하이테크 군사 기술을 지니고 있다.
2. 플라자 합의는 G5라는 다자간 논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출되었지만, 오늘날의 G7은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담판 형식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에 관철할 수 있는 협상 및 합의의 국제적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
3. 중국 경제의 성장은 이미 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중국의 생산물 대다수가 완성품이라 수출입이 막히더라도 중국의 경제에 결정적인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83]

이러한 주장의 상당수는 극히 주관적인 내셔널리즘에 빠져 있음은 물론, '중국 특색의' 정세관, '중국 특색의' 주의주의(主意主義, voluntarism), '중국 특색의' 문명론적 유아론(唯我論, solipsism) 등으로 범벅 되어 있다. 트럼프 방식의 미국 제국주의가 대외적으로 아주 난폭하고 광란적인 것만큼이나, 시진핑(習近平) 버전의 중국 제국주의도 그 발상이나 담론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주관적인 인지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미·중 간 무역 분쟁 자체에 관해서 정리하면, 트럼프 등장 이래 미국은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강압적으로 중국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는 중국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84].

또한 현재의 미국 무역 적자는 중국이 미국에 굴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달러화의 '과도한 특권'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글로벌 불균형의 부분 집합[85]에 해당하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의 문제가 본원

83) 이재현. 위의. 글. p.200

84) 레이건의 순환 모델은 1980년 말부터 시작됐다. 이 새로운 질서의 특징은 달러를 강화하고 금융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금융업의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미국 금융계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며 이익을 볼 수 있고, 다국적기업 역시 저렴한 달러를 통해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할 경우 미국 수출 제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무역적자가 지속하고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무역 분쟁을 포함해 미·중 간의 다면적 패권 대립 전체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을 두 제국주의 국가의 충돌로 읽어낼 수밖에 없다. 모델스키의 장주기론은 세계 정치 주기와 세계 경제 주기의 관계도 논의한다. 그는 비교 연구를 통해 정치와 경제 주기의 변화가 본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패권국이 세계 정치 체제에서의 우세한 지위가 세계 경제 체제에서 우세한 지위와 함께 탄생하여 서로 인과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반면 도전 국가는 발전 속도와 성장효율을 통해 필연적으로 패권 국가에 위협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86]

오늘날 달러화의 패권적 지위가 쇠퇴하고 미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 패권은 미국의 패권이 역사상 출현한 다른 패권국들과는 구별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국제 조직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 약화 및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국의 영향력 강화 등은 미국의 쇠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여전히 미국의 패권은 경제-금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넘버 투' 중국의 경우, 정치적, 윤리적 리더십과 글로벌 규범 및 표준 등을 통한 영향력 투사에 실패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도 싫지만, 중국의 패권 역시 싫다는 게 글로벌한 컨센서스인 것이다.[87]

이러한 현상 속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패권 주기론의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패권 주기론 시각에서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과 타국 간의 권력 격차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키우거나 상대를 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패권국의 패권 보유전략은 자신의 실력을 증대 시켜 패권 구조에서 우위를 유지하거나 특히 도전국의 패권을 약화해 상대적인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먼저 국내 정책은 국가 내부의 정치 경제 발전은 자신의 권력 기반과 권력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건이다. 두 번째 방법은 주로 외교와 관련되어 자신의 권력 자원이 순증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인 권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패권 체제에서 도전을 형성하는 국가를

85) 陈栋, 吴明明. 中美贸易失衡的成因, 影响与对策分析[J]. 商场现代化, 2011 (3): 1-2. p16
86) 郭学堂 위의. 글. p.60
87) 이재현. 위의. 글. p.230

주요 목표로 한다.

패권 확보 전략에서 패권의 도전국이나 잠재적 도전국을 약화해 패권의 상대적 권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패권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 패권국의 절대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도전국의 힘을 약화하는 통로는 다양하다. 주로 도전국에 대한 경제와 기술적 봉쇄를 통해 국력 신장을 늦추고, 도전국에 대한 반대 세력을 지지하고, 도전국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여론 공격에 나서 문화적 영향력과 제도의 호소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이 네덜란드와 해상 패권 경쟁 과정에서 영국은 네덜란드의 적을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쳐들어왔다.[88]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도전국을 군사 충돌에 휘말리게 하고, 그 충돌에서 도전국의 상대를 지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통해 도전국 미국 기업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고, 일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기술봉쇄 정책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의 예시라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의 미국의 중국 굴기 억제가 비교적 의미 있는 조치인 것이다. 또한 관세를 통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장옌성(張延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경우 중국 GDP에 약 0.10~0.12%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GDP에 약 0.20~0.25%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89]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기업 차원에서 원가 증가, 수주 감소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감산과 휴업, 재편에 직면토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자통신, 전기기계, 목재, 가공, 화학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90]

---

88) 魏光明 위의 글. p.19
89) 张伟. 中美贸易战的演变历程，经济影响及政策博弈[J]. 深圳大学学报》(人文社科版)，2018，35(5)：73-82.2018 p23
90) 张伟 위의 글. p.25

2. 중국 우위론

가. 미국 고립주의의 부정적인 영향

객관적으로 미국은 중국보다 국제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위축과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하였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쇠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6>은 주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이전인 2013년 미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집권 중반기인 2018년에는 이 수치가 증가하여 45%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비율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6> 안보 위협 요인 설문 조사 결과[91)]

	2013	2017	2018
미국	25%	38%	45%
중국	34%	34%	35%
러시아	-	33%	36%
북핵	47%	-	55%

출처:pew research center

많은 학자는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색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고립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기치라 할 수 있다. 고립주의 전략은 1789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을 독점해 왔다.[92)] 냉전 후 신고립

91)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10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8월 전 세계 2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미국이 자국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러시아중국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비율은 각각 36%와 35%였다.2013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중국을 위협으로 지목한 비율은 각각 25%, 34%였다

92) Robert Art."『the Great American Strategy』 p136

주의자들은 미국이 전 세계적인 책임과 의무를 줄여야 하며 원조와 군사 배치를 줄여야 하며 국제 조약의 속박을 줄여 미국이 전략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3]

이 같은 경향은 냉전 이후 역대 정권 정책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전후 고립주의나 신고립주의 역시 '미국 우선' 원칙을 강조하지만, 모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전후 체제 유지와 배치, 미국의 '일차적 지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강조한 '미국 내 경제 우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조한 '단일적 행동'의 자유 역시 '고립주의적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는 전후 형성된 체제를 직접 가리키며 '미국 패권'이라는 통치 스타일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4] 이 때문에 학자들은 "전통적 고립주의는 유럽 내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트럼프 신고립주의는 이미 형성된 이른바 '자립주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문과 배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종전의 '신(新)고립주의' 주장보다 더 철저히 전후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의 전통적 관행을 바꾸는 것은 물론 미국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패권 방식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념 아래 트럼프 집권 이후 고립주의적 정책이 줄을 이었다. 2017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95]과 <파리협약>[96], <유네스코>[97], <난민과 이민 문제 뉴욕 선언>[98]을 연이어 탈퇴하였다. 또 2018년

---

93) 李强. 美国孤立主义发展及其特点研究. MS thesis. 青岛大学, 2006.硕士论文 p45

94) 李强.위의 글. p.51

9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 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이다.

96)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97)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이며 인류가 보존 보호해야 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98)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난민과 이민 대규모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19일 '난민과 이민 문제 뉴욕 선언'을 공식 채택하였다.
선언은, 난민과 이민에 대해 일련의 언약을 했고 난민 문제에 대한 대처 구도를 구축하였다.

에는 <이란 핵 협약>[99]과 <유엔인권이사회>[100]까지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다자주의에 대한 의문을 '조직 탈퇴'를 통해 표명하고 있으며 다자 틀에 '미국 표준'을 적용하자 한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협약이나 국제기구에 지속해서 참여할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미국은 각종 합의의 직접 당사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미국의 도전과 다자협력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조차 불만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는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이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왔으며, 이는 더는 확실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였다.[101]

반면 중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일련의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102]

패권주기론은 정치의 사이클이 순환할 수 있는 이유로 패권국의 질서 아래에서 공공상품의 수급 관계가 이루어지는 점을 들었다.[103] 이러한 질서는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패권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패권국을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패권 주기론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

99)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이 함께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주도해온 대 이란 제재도 함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이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 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다.

101) 李泽生 特朗普政府的防御性单边主义外交及其影响, 2019(1): 15-19.0 p13

102) 张旗. 特朗普的“外交革命”与自由国际主义的衰落[J]. 东北亚论坛, 2018, 27(4): 80-94.

103) 魏光明 위의 글. p.26

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 연간 경제성장률은 6.5~7%에 달하였지만, 미국은 1.5~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JP Morgan[104]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명목 세계 GDP 비중은 32.7%에서 26.7%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3.8%에서 17.7%로 상승했다.

2014년부터 중국의 구매력 평가액은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상실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중국은 달러 위기를 계기로 달러 대신 위안화를 보급하거나 달러화의 기축통화 배제 전략을 펴고 있다.[105]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국채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 역시 미국의 경제력에 대해 의문을 더한다.

더욱이 2015년에는 중국 중심의 AIIB[106] 설립에 한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합류함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가중되었다.

한편 2020년 글로벌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지지만, 중국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더 좁힌다. 2020년 10월 현재 imf는 미국의 GDP가 20조 8,00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중국은 1조 486억 달러 증가하면서 미국 GDP 대비 71%까지 추격하였다.[107]

---

104) 1838년 미국의 기업가 조지 피바디(George Peabody)가 런던에 상업은행을 개점하여 기초를 마련하였다. 1854년 뉴잉글랜드의 주니어스 S. 모건(Junius S. Morgan)이 피바디의 동업자가 되었다가 1864년 그 회사를 인수하여 J.S.모건 앤드 컴퍼니(J.S. Morgan & Co.)로 이름을 바꾸었다.

105) 중국경제망
(http://kr.ce.cn) (검색일: 2021.01.07.)

106)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정식 출범 계획일은 2015년 연말. 중국은 기존의 IMF, 세계은행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 AIIB의 창립 목적을 밝혔다.

3. 미국 우위론

가. 군사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양 패권국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전략 기조의 핵심은 해상의 장악권을 쥐고, 그 장악력을 바탕으로 주요 국면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브레턴우즈체제 아래에서 미국은 바다와 하늘의 패권을 지켰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 해군은 연간 1,500억 달러를 지출한다.[108]

오늘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모든 면에서 미군에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 격차는 압도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전단은 11개에 달하지만, 중국은 2017년 5월에야 2개를 배치할 정도로 군사력에서 열세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근방에 또 다른 초강대국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해외 주둔 기지도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 140여 개국 374개의 기지에 군사력을 상시 주둔하고 있다.[109] 언제든지 군사력의 투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공군의 경우 미국이 1990년대 5세대 전투기인 F-22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였지만, 중국은 대항 기종으로 개발 중인 J-20 전투기가 여전히 대규모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공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적어도 10~20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10]

---

107) 中国经济网
(http://www.ce.cn/) (검색일: 2021.01.05.)
108) 韦宗友. 战略焦虑与美国对 “一带一路” 倡议的认知及政策变化[J]. 南洋问题研究, 2018, 4. p180
109) https://www.military.com/ (검색일: 2021.01.08.)
110) 张喜燕“张喜燕. 中美军事软实力内涵辨析[J]. 西安政治学院学报, 2011, 24(1): 28-31.” 2 p45

<표-7>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미국	중국
군사예산	610 billion $	228 billion $
GDP의 백분율	3,1%	1,9%
병력	1,281,900	2,300,000
예비인원	811,000	8,000,000
전차	6,393	7,760
장갑 전투 차량	41,760	6,000
총 포병	3,269	9,726
자동화 포병	950	1,710
미사일	1,197	1,770
전체 항공기	12,304	4,182
전투기	457	1,150
전폭기	2,192	629
공격 항공기	587	270
헬리콥터	4,889	1,170
전체 군함	437	780
항공모함	20	2
구축함	85	36
호위함	0	54
초계함	0	42
잠수함	71	76

출처: AemedForces.eu (Military power of USA & China)

<표-7>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군은 모든 면에서 미군에 뒤진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 격차는 압도적이다. 중국이 해군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해군력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해군과 공군은 단순히 자본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패권 주기론적 시각에서 패권국가의 필수조건 중 하나는 전 지구적인 해군력과 다른 이용 가능한 정치·전략조직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조지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해군력이 패권 능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라 주장하였다.[111]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군의 차세대 군사 무기 개

111) 모델스키는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리적으로 '안보 잉여(surplus security)'가 있는 섬나라 또는 반도 국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전략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해군력과 기타 이용 가능한 정치전략조직이 있어야 하며, 경제력으로 볼 때 세계 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직 역시 능력이

발계획이 모두 차질없이 성공하더라도, 최소한 203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미 해군에 대항할 만한 전력을 갖추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중국이 성장할 동안 미국의 성장이 정체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에도 미 해군이 우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세기 말 미국은 21세기의 외교 전략을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외교 전략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경제와 정치의 세계화이다.[112] 미국의 패권전략 목표는 냉전이 막 끝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1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이상에 따라 새로운 국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113] 이러한 기조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한다.[114] 1994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는 패권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국가안보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 목표는 각각 군사력과 경제력, 민주주의를 의미하였는데, 이후의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보고"와 주요 담화에서 패권전략의 목표와 3대 목표는 지속해서 언급된다. 이는 21세기에도 이어져 1998년 말 미국은 '신세기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이 추진해온 패권 전략을 그대로 계승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상술한 3대 목표를 '글로벌 통합'과 연계시켰다.

나. 대만

미국의 IT 경제 규모는 2019년 13조 1,000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컸다. 반면 중국은 2위로 5조 2,0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다.[115] 또한 GDP 대비 비중은 독일 63.4%, 영국 62.3%, 미국 61%로 2019년 기준으로 3위 안에 든다. 2019년 중국의 GDP 대비 IT 경제 비중은 36.2%에 불과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1978

112) 徐焰. 中美经济, 军事实力的差距有多大[J]. 同舟共进, 2012 (8): 21-24. p65

113) 梅孜. 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汇编[J].北京:时事出版社, 1996, 143: 151-188.p.188-p.190

114) Bill Clinton's Inaugural Address on January 20, 1993. Complete Work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n

115) 세계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모습 - 중국신통원 http://www.caict.ac.cn (검색일: 2021.01.08.)

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IT 분야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인 1인당 임금은 2010년 이후 10년 사이 6배 증가하면서 주요 해외 제조업체들은 국외로 대거 빠져나갔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 소비시장인 미국 근처로 이전했는데, 그중에서도 멕시코가 주목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운송 연료비가 오르면서 중국의 제조업 강자 위상이 떨어지고, 다단계로 구성된 세계 공급사슬도 짧아진 것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116] 제조업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세가 주춤할 가능성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치는 배경이 된다. 오늘날까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향후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과거 경제성장 시기와 달리 중국의 경제성장 저하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내부의 취약성 또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2015년 8월 상하이 증시 폭락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당시 블룸버그가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이 5%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4%대에 불과하였다.

또 경제 패권의 경우 2015년 10월 5일 TPP 타결로 AIIB를 통한 패권 확대를 노린 중국과 반대로 미국의 경제 패권 유지 전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중국의 성장에 미국의 막대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보호무역으로의 회귀와 무역 제재는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다.[117] 무엇보다 경제 규모가 비슷해지더라도 큰 인구수의 차이는 여전히 질적인 차이를 내포할 것으로 예측된다.[118]

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패권 주기 이론은 세계 정치 주기와 세계

116) 中国经济的五大问题
http://jjckb.xinhuanet.com/opinion/2013-04/10/content_438460.htm(검색일: 2021.01.10.)
117) 袁鹏. 金融危机与美国经济霸权: 历史与政治的解读[J]. 现代国际关系, 2009 (5): 1-6.2
118) 袁鹏 위의 글. p.46

경제 주기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세계 정치 주기의 변화와 세계 경제 장파의 주기가 연관성에 대한 설명에서 패권국의 정치적 지위는 경제 체제의 우위와 함께 생기며, 경제 시스템의 발전을 주도하며 전 세계 경제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수와 일부 산업의 이탈에 따라 미국에 대한 추월이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 반면 미국은 경제 패권 및 무역 패권은 유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119]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19) 魏光明 위의 글. p.20

Ⅳ. 미·중무역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

1.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

가. 경제적 원인

무역 분쟁의 원인과 유형은 일방의 수입 급증이나 수입 제한으로 인한 미시적 경제 분쟁, 쌍방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거시적 경제 분쟁, 국제 투자와 관련된 투자 분쟁, 쌍방의 무역 제도가 달라서 야기된 분쟁, 기술적인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술 분쟁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120] 이들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양측의 차이가 무역 분쟁의 배경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전히 개발도상국 단계에 머무른 중국이 시장경제 제도가 미비한 점과 정치 제도와 문화 전통이 미국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무역 분쟁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라 볼 수도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가 촉진됐지만, 이면에는 환율 문제와 무역 불평등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하여 왔다. 더욱이 두 나라의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하면서 제도적으로도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시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쌍방의 무역 분쟁도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무역 불균형과 반덤핑 등의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 8> 최근 5년 간 미·중 무역 상황

연도	미국의 대중 수출 비율	미국의 대중 수입 비율	중국의 대미 수출 비율	중국의 대미 수입 비율
2015	7.7%	16.2%	17.7%	9.1%
2016	8.0%	15.7%	18.2%	8.6%

120) 王倩倩. 中美贸易战升级的原因，影响及趋势[J]. 商业故事，2018 (23): 153.2018 p13

2017	8.4%	15.9%	19.0%	8.4%
2018	7.2%	16.4%	19.2%	7.3%
2019	6.5%	13.7%	16.7%	5.9

출처: 미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표-8>은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에 대한 무역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에서의 수입이 전체 미국 수입의 15%가량을 차지한다. 2019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정돼 15.5%가 넘었다.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8.4%를 정점으로 2018년과 2019년 하락세로 돌아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 측 시각에서 미국은 중국의 세 번째 수입국이다. 중국은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 2015년 9.1%에서 2019년 5.9%로 떨어졌다. 다만 2019년에는 여전히 중국의 세 번째 수입국이며 중국의 제1위 수출국이다.

<표-9>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단위: 억달러

연도	무역 적자
2011	-2.952
2012	-3.151
2013	-3.187
2014	-3.448
2015	-3.673
2016	-3.470
2017	-3.752

출처: 미국 상무부

<표-9>는 2011~2017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0% 안팎으로 일정한 모습을 보였다.

상술한 자료에서 보이듯이 중국은 미국의 제1 무역 적자국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끊임없이 고조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나. 정치적 원인

미·중 무역 분쟁은 다양한 정치적 원인 또한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소련의 해체라는 미·중 관계의 전략적 본질을 바꿔놓았다. 그로 인해 미국은 패권 유지의 초점이 지역의 잠재적 상대들에 맞추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걸프전, 유고 내전 및 냉전 후의 '평화유지'와 '인도적 개입'으로 구체화 되었다. 반면 중국은 비(非)서방적 정치체제, 경제적 잠재력,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패권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였다.

한편 세계 무역 체제의 변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 무역의 흐름은 자유무역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막대한 무역적자 등의 문제로 공정무역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시장 개방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기본 관점이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타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이견(異見)이 생기고, 통상 분쟁이 생긴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이중적이고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역시 정치적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양안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 일방주의를 고수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진행한다. 이에 중국 정부의 항의가 이루어져 전쟁위험에 처한다. 반면 미국은 무기 판매를 통한 실리를 확보한다.[121] 또한 미국의 국내 정치체제가 가진 특징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집단의 존재에 따라 공동의 목표와 이익 실현을 위해 가하는 압력이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과 관련 협회는 중국에 대한 301 조사를 지지하지만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세금 인상 여부는 의견이 갈린다.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과 노조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 2018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태양열 월드(Solar World Corporation)사는 중국이 자국 태양전지 정책을

121) 王倩倩 위의 글. 2018. p.19

지지해 이 회사가 '수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또 미국 초전도회사(AMSC)는 중국산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122]

보잉, 록히드 마틴, 유나이티드항공 등 60여만 명의 재직·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사와 항공우주산업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AW) 역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한 미국 회사를 조사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회사의 경우 관세를 부과 시 자사 제품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였다.[123] 또한 외국과의 교역과 조약, 관세 등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의원 개인이 지역의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로 대외 정책이 흘러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124]

상술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2.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과정

가. 1단계: 무역 분쟁의 전개

<표-10> 미-중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1

시간	사건
2017.8.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망록을 내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재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232조사)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중국의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및 혁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행보, 정책과 처사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은지,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이나 규제를 결정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301조)를 개시했다.

122) 美國太陽能關稅保障中期複審報告出爐
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2021.01.05.)
123) 张文宗 . 美国涉华经济利益集团与中美贸易摩擦[J]. 美国研究, 2019, 33(6): 63-83.'2019 p.45.
124) 劉芹 위의 글. p.35

2018.1.2	미국 정부는 대형 세탁기와 태양광발전기의 수입에 대해 각각 4년과 3년간의 글로벌 보장 조치를 취하고, 각각 최고세율 30%, 50%의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2.4	미국 정부는 중국을 수입하는 주철 오수관 부품에 대해 109.95%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3.22	트럼프는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는 등 총 600억 달러, 관세가 즉시 발효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과세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후 30일 동안 대중 의견을 묻는 공시기간이 있다"고 대통령 비망록에 서명했다.
2018.3.23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32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 자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 측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3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과일, 돼지고기, 와인, 심리스강관, 기타 1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2018년 4월 2일, 중국은 미국 원산 7종 128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고, 현행 적용되는 관세율에 관세를 추가하였다
2018.4.10	미국 상무부가 대중 냉간기계통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의 대미 덤핑 폭은 최고 186.89%에 달한다고 판정했다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상품의 수출액은 약 2940만 달러이다
2018.5.3	중국 해관총서는 각 직할 세관에 미국 애플과 원목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라는 경고통신을 보냈다. 이 통보는 중국 측이 의심스러운 미국 송화 애플과 원목 샘플링 실험실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동안에는 해당 화물을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검역성 유해 생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해당 화물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2018년 초부터 빠르게 전개되었다. 당시 미

국의 조치는 단순히 중국만을 상대로 보호무역 조치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보호무역 조치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하여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개하였다.

이어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1,300개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및 기술 이전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 경제 침략에 대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를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언급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기준 3,75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 대상 1,300개 품목 중 무역적자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제조국을 추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와 첨단기계, 전자제품 등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10대 첨단 산업상품을 목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 조치가 단순히 무역수지를 통한 절대적 무역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을 견제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성장력 산업을 견제하고, 약화하지 않고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125]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앞선 패권국가의 패권 유지 전략 가운데 도전국에 대한 능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2015년 무렵 중국의 증시 폭락 및 외환 보유고 급감사태 때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는 무역적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 현상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데마고기(Demagogy)적 선동을 통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국 측에 갖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패권국이 도전국과 자신의 실력 차이가 점차 좁혀

125) 劉芹 위의 글. p.39.

진 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패권 국가의 패권 지위의 보호는 본질적으로 도전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에 있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권력 격차를 유지하고 안전 상수 안에서 패권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2단계: 무역 분쟁의 완화

<표-11> 미중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2

시간	사건
2019.9.5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라이트 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무누친 재무장관과 통화하면서 10월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열기로 확정했다
2020.1.13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국무원 부총리, 미·중 전면 경제대화 주역인 류쉐리(劉鶴成)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트럼프, 백악관서 1단계 합의 2020년 1월 15일 서명
2020.1.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중국 상품 1200억 달러에 대한 신규 관세를 30일 안에 7.5%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25%를 더 일찍 부과했다.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1100억 달러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그대로다. 양쪽 기업이 자유롭게 상대방 시장에 진입하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과 기술허가는 시장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자연인이나 기업개설을 정부가 지원지도하지 않는다.경쟁을 왜곡하는 기술 획득을 위한 대외 투자쌍방이 합작 기업을 인수, 설립할 때,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없고, 행정 관리, 행정 허가 등의 요구를 통해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양 당사자는 기술 이전이나 그 사용을 시장 접근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행정관리, 행정허가가 투명하고, 행정감사 심사과정에서 기업에 민감한 기술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쌍방은 모두 상대방 통화정책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쌍방이 가격 경쟁의 목적으로 화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등

2020.2.10	중국은 65종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다
2020.2.28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중국 내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수입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중국의 대미 301조치에 대한 반제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2020.3.2	국무원 관세부과 위원회는 제1차 대미 관세부과 품목에 대한 제1차 제외명세서를 2021년 9월 16일로 연기하였으며, 이 기간에도 계속하여 명세부 내에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하지 않았다.
2020.9.15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총 2500억 달러의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하며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조항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미국 측은 세계무역기구의 조치에 무력하여 중국 측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

출처: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패권 주기 이론의 한계도 뚜렷해 15세기부터 500년의 역사를 통해 21세기의 발전을 시연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魏光明은 <霸權週期論與中美關係> 에서 현재 세계는 평온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패권 다툼과 전쟁의 경향은 국제적 발장의 주류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세계는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과학혁명과 문화의 융합 속에서 정치 주기 규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패권적 리더십의 부분은 현실적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26]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국제적 추세에 영원한 적이 없고,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패권주기론은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관계와 정치 분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패권주기론은 역사상의 패권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타국에 패권을 추월당해 패권 주자의 지위를 잃기 시작한 시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도 70년대 쇠퇴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패권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힘을 회

126) 魏光明 위의 글. p.29

복하여 단극으로서의 패권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듯 미국은 일종의 '신(新)패권'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질서는 이전과는 달리 온건한 패권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받아 세계 경제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투사하는 도움을 주겠다는 패권 주기 이론의 주장[127]과 인권 외교는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은 세계 유일의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무역 분쟁의 잠정적 종결

<표-12> 미-증 무역 분쟁에 전개과정 3

시간	사건
2018.12.13	미·중 양국이 1단계 경제무역 협정문에 합의하다.15일 국무원 관세철폐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01분부터 관세가 붙을 예정이던 미국 원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 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 원산지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8.9.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방한한 호주의 모리슨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베이징과 불완전한 협정은 원치 않는다며 지난주 '임시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표현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를 모색한다. 전면적이지 않은 합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몬태나 주 농업국과 네브래스카 주 농업부는 중국 농업대표단이 당초 예정됐던 몬태나 주, 네브래스카 주 농업지구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9.23	중국 수입상들이 미국 대두를 10배씩, 총중량 약 60만 톤을 구매하였다.
2018.10.22	미국 연방기사가 중국의 메기 규제 시스템과 미국의 효과를 확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에 메기 수출을 공식 허용해 미국에 메기를 수

127) 魏光明 위의 글. p.35

	출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다.
2018.11.18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90일간의 승인 연기를 발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12.10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어떤 합판에 대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최종재판을 내리고, 미국 세관과 국경보호국에 계속 어떤 중국 수입합판에 대하여 반덤핑세와 반보조금 세금 보증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8.12.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큰 합의가 임박했다. 그들이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고 말했다.(Getting VERY close to a BIG DEAL with China. They want it, and so do we!)[381] 미국 증시, 위안화 환율 급등에 중국 증시도 다음 날 고공행진

출처: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패권 주기 이론의 시각에서 전 세계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세계 강대국이 세계 지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만들어진 시스템 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패권 국가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패권 논리가 향후에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은 현실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는 지금 점점 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냉전 후에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개체의 조화로운 시스템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오랜 기간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무기의 억지력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의 염원에 따라 전쟁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은 무역 분쟁의 잠정적 종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시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완만하게 종결 혹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는 미국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 하방과 탄핵 시도, 전통적 선거구 지지율 하락과 미-유럽 무역 분쟁 고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중국의 부상 억제는 미국 패권 유지의 핵심 조건이다. 이는 무역전이든, 과학

기술전이든, 금융전이든, 결국 중국의 부상을 제압이 필요한 것이다. 또 글로벌화 추세로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타국과 정치·경제·문화에서 밀접하게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은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자극이 커졌고, 국제시장의 변화는 미국 국내시장의 이익과 직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국제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갈등의 가능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다만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변화의 가능성도 가진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와 투자소비 억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의 수출을 감소 시켜 설비투자를 억제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한계에 따라 2021년 중미 무역전은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128)]

3.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주식과 외환시장, 콩과 석탄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해 국내외 무역 우호 입법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129)]

또한 중국과 일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 31일 미국이 유럽연합,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후 EU는 일부 위스키, 크랜베리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다. 또 같은 날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부터 130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멕시코 경제부는 5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고관

128) 舒建中 中国和美国贸易纷争的发展预测”2020, 15-19. p16『南大亚太评论』
129) 刘辉. 中美贸易战的影响及解决方案[J]. 成功营销, 2018 (12): 41. p90

세 부과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하였다.[130]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무역 분쟁이 그들에게 확장과 해외 투자 계획을 보류하도록 강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목재회사 Weyerhaeuser에 따르면 중국에 부과한 5%의 관세로 인해 중국의 원목 수출이 하락했다. 또 유니언 퍼시픽 코프(UNP)는 중국이 부과한 관세 때문에 곡물 운송 증가가 사라졌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포춘 브랜즈 홈 & 시큐리티(Fortune Brands Home & Security)에 따르면 관세율 부가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생산과 조립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131] 상호 의존이 특징인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무역 충돌의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퍼진 것이다.

<표-13>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 기구	무역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무역 기구	관세가 관세 총협정/세계무역기구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글로벌 경제는 즉시 15% 수축하고 전세계 교역량은 60% 이상 삭감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관세증가 조치가 유도될 것이다 전세계 경제의 증가 속도를 약 0.5 퍼센트 하락시켰다. 관세증가 조치가 유도될 것이다 전세계 경제의 증가 속도를 약 0.5 퍼센트 하락시켰다.
바클레이스캐피털	전 세계 경기의 증가 속도가 0.6퍼센트 하락하여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이 0.7포인트 상승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전 세계 경제는 1%의 증가 또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	만약 미국과 모든 무역 파트너의 관세가 10퍼센트 인상된다면, 미국의 국내총생산 은 25퍼센트 그리고 전세계 경제는 1퍼센트 떨어질 수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한 나라는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상대국의 수출을 13~25% 감소시킬 것이다.

자료 출처: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팀직, 바클레이즈 자본, 스탠더드 푸어, 영국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130) 中国央视新闻网
http://news.cctv.com (검색일: 2021.01.09.)
131) 华尔街日报中文网
https://cn.wsj.com/(검색일: 2021.01.09.)

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 파괴로도 이어졌다. 당대 경제학계는 세계 무역체제가 전후 세계 경제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한다.[132] 특히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 규칙의 주요 설계자로 참여하였음에도 스스로 이 법칙을 무너뜨렸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붕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통령에게 세계무역기구(WTO)를 거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을 시도하였다.[133]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제베도(Azevedo) WTO 사무총장은 "다자간 무역체제가 파괴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4%포인트 떨어지고, 세계 무역의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이 시행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제결제은행은 보호주의 대두가 세계 경제의 주요 취약점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쇠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134] 또한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실물 경제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데, 옥스퍼드 연구소 보고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이미 상업적 신뢰와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경제 글로벌 시대에 각국의 경제 이익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상호 연관 관계의 일부가 단절됨에 따라 미국 산업계와 소비자 역시 큰 손실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무역전쟁으로 일자리 25만 개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미국 가계의 지출 역시 평균 21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135]

---

132) 刘辉 위의 글. p.93-p.94

133) 今日美国网
https://www.usatoday.com(검색일: 2021.01.010.)

134) Azevedo, WTO Director-General'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can never be replaced'
(https://www.chinanews.com/cj/2014/05-17/6181979.shtml)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였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여 더욱 전통적인 미국의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높고 정책 역시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이후 관세 압력은 줄어들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란 시각도 전개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본 정책은 기후변화와 핵확산 방지, 글로벌 보건·안전 등 '미·중 이익이 만나는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의 협력을 진행하지만, 미래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관하여서는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136]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중 관계는 모델스키가 지적한 '정치적 국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 쇠퇴기에서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35) 刘芹 위의 글. p.26
136) "America's Post-Trump Foreign Policy"

Ⅴ. 결론

2018년 3월 22일 미국이 중국의 1,300개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및 기술 이전을 제한한다는 '중국 경제 침략에 대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를 인준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가량 남아있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전 세계 공업 능력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8월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미국 뉴스사이트 아메리카 프로스펙트와(America Prospect)[137]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을 벌이고 있다. 25년, 30년 안에 우리 중 하나가 패자가 되고 우리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패자는 그들이 된다. 경제전에서도 우리가 패퇴를 거듭하면 5년에서 최대 10년은 회복 불능의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배넌의 '중국위협론'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서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들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송국우(宋國友)는 두 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미·중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을 펼쳤고[138], 중국 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하여 중국의

137)https://prospect.org/day-one-agenda/how-biden-can-end-trumps-maca (검색일: 2021.01.11.)
138) 宋国友 위의 글. 2016

미래 국제사회발전을 예측한 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려면 더 많은 글로벌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ukin 2019).

한편 자유무역이 보호주의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을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긴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크고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제 강국이고 중국이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때문에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중국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ASEAN이 부분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이왕휘 2018).

보통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패권체제의 도전자이자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의 부상이,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업종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우위가 큰 업종일수록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적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중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결론에 쉽게 다다르게 된다. 중국의 경제·군사·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은 아직 미국에 도전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력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냉전 이후 시대적 과제가 평화발전이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평화발전의 시대적 이념은 이미 세계 발전의 주류적 의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간 국제관계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두 국가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무역 분쟁 분석과 패권 주기 이론의 해석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전히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중국의 미비한 실력과 해당 무역분쟁 자체가 미국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위상변화가 미국에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중국의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은 오히려 허상에 가까울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격차를 더 확실히 인정하고 새롭고 독특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공동번영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김동성, 정성희. 2016.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J]".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78.

김동성. 2018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J]. 이슈 & 진단, " (317): 1-34.

김석우·장숙인. (2016).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분석. 아태연구, 23(4), 5-31.

김재관. 2006.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J]. 국제정치논총," 141-168.

로버트 키오한.2012. "패권 이후: 세계정치경제에서의협력과 분쟁". 「상하이 인민 출판」 158.

白昌宰 1994. "보호주의, 자유주의, 수정주의: 미국 무역정책의 사회적 기반" 70-75.

이범준, 2009. "미국외교정책" 「서울: 博英社」.35-39.

이왕휘. 2018.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J]."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61(4): 77-116.

이재현. 2019.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J]". 진보평론, 196-230.

이효빈,손원배,박문수. 2020. "미· 중 갈등으로 본 기술패권 전쟁: 트럼프는 왜 화웨이를 공격했는가?[J]" 정치정보연구. 349-374.

존 밀스하이머. 2014. "대국정치의 비극[M]." 「상하이 인민출판사」.150.

차창훈. 2014.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8(4), 5-25.

키신 저.2019. "미·중 양국은 마땅히 서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

趙金龍. 美國 TPP 戰略的動机及其對東北亞經濟一体化的影響研究[J]. 東北亞論壇, 2012 (6): 18-26.

劉芹. 中美貿易摩擦産生的深層原因[J]. 國際經貿探索, 2001 (4): 61-64.

劉一建. 中國未來的海軍建設与海軍戰略[J]. 戰略与管理, 1999 (5): 96-100.

劉自强. 布雷頓森林体系崩潰的歷史影響新論[J]. 理論月刊, 2009, 2009(3): 153-155..
劉輝. 中美貿易戰的影響及解決方案[J]. 成功營銷, 2018 (12): 41.
李强. 美國孤立主義發展及其特点研究[D]. 青島大學, 2006.
李澤生“特朗普政府的防御性單邊主義外交及其影響”2020.
梅孜. 美國國家安全戰略報告匯編[J]. 北京: 時事出版社, 1996, 143: 151-188.
袁鵬. 金融危机与美國經濟霸權: 歷史与政治的解讀[J]. 現代國際關系, 2009 (5): 1-6.
舒建中“中國和美國貿易紛爭的發展預測”2020.
徐焰. 中美經濟, 軍事實力的差距有多大[J]. 同舟共進, 2012 (8): 21-24.8.
程卓. 淺談中美貿易摩擦的現狀和發展趨勢[J]. 中國科技信息, 2005 (6): 42-43.
宋國友 美中貿易戰：原因，形式以及影響因素 2016.
吳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D]. 上海社會科學院, 2018. ″2018.
吳心伯. 特朗普執政与美國對華政策的新階段[J]. 國際問題研究, 2018, 3: 80-93.
王巧榮 中美關係40年：歷程、特點及經驗啓示 中國社會科學院 2019 15-26
王雅琪 從華爲事件看中美貿易紛爭本質2019.
王逸舟. 霸權· 秩序· 規則[J]. 美國研究, 1995 (2): 43-68.
王倩倩. 中美貿易戰升級的原因, 影響及趨勢[J]. 商業故事, 2018 (23): 153.
袁鵬. 金融危机与美國經濟霸權: 歷史与政治的解讀[J]. 現代國際關系, 2009 (5): 1-6.
侯遠長, 王增杰. 中國國家核心利益探析[J]. 中州學刊, 2014, 2014(1): 15-19.
魏光明. 霸權周期理論与中美關系[J]. 当代亞太, 2002 (2): 11-16.
任遠喆, 王戴林. 中美建交 40 年的 40 件大事[J]. 世界知識, 2019 (1): 11.
任靚. 特朗普貿易政策与美對華″ 301″ 調查[J]. 國際貿易問題, 2017, 12: 153-165.
張文宗. 美國涉華經濟利益集團与中美貿易摩擦[J]. 美國研究, 2019, 33(6): 63-83.
張純厚. 当代西方的兩种新自由主義－－政治新自由主義与新保守主義的對立[J]. 政治學研究, 2010 (3): 105-112.

高善文. 中美貿易戰影響如何?[J]. 清華金融評論, 2018 (11): 24.
張偉. 中美貿易戰的演變歷程, 經濟影響及政策博弈[J]. 《 深圳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18, 35(5): 73-82.
陳曉晨. 國際政治長周期与体系進化－－莫德爾斯基長周期理論再解讀[J]. 現代國際關系, 2004 (12): 56-61.
鐵殿君, 李華. 論李嘉圖的 “比較优勢理論”[J]. 安陽工學院學報, 2010, 9(1): 59-61.
何自力. 美國發動貿易戰凸顯其霸權主義本質[J]. 紅旗文稿, 2018, 17.
黃瑩, 林金忠 霸權衰退時期實行貿易保護政策[J] 2014. 21

A. Hillman and Heinrich W. Ursprung, "Domestic Politics, Foreign Interests', and International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1988, 72:769-783.
Hillman A L. Declining industries and political-support protectionist motives[J].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82, 72(5): 1180-1187.
Bill Clinton's Inaugural Address on January 20, 1993. Complete Work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n
Eduardo Porter, "Why the Trade Deficit Matters, and What Trump Can Do About It" Oct. 17, 2017, New York Times.
Modelski G. Documenting global leadership[M]. Springer, 1988.
Cohen G A, Capitalism F. the Proletariat'in Alan Ryan (ed.) The Idea of Freedom: Essays in Honour of Isaiah Berlin[J]. 1979.
Kang D 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cond Korean war[J].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3, 47(3): 301-324.
Lukin A. The US‐China Trade War and China's Strategic Future[J]. Survival, 2019, 61(1): 23-50.
Kirp D L. Improbable scholars: The rebirth of a great American school system and a strategy for America's school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Gilpin R.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Gilpin R.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Robert Gili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Gilpin R, Gilpin J M.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 political ecomony,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Keohane R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Gills B K, Frank A G. World system cycles, crises, and hegemonic shifts, 1700 BC to 1700 AD[J].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1993: 143-199.

Mayer W. Endogenous tariff formation[J].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84, 74(5): 970-985.

Zi-guang Z.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and Taiwan Issues [J][J]. Journal of Chengde Teachers' College for Nationalities, 2007, 1.

A Hegemonic Cycle Theory Based Interpretation on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ed on the Cases of the Trade DisputesTaiwanese Case

Sun Qiang

Department of Political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 Jaekwon, PhD

Abstract

Changes in the overall national strength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among major powers will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entire international order. However, the U.S-China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and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the world's largest developing country and largest developed country, has a global influence beyond bilateral relations. It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the 21st century. The fri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a disaster not only for the two countries,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The most complicated reason is that "the sharpness of U.S-China strategic conflict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powers." The most important part of U.S-China relations is the U.S-China economy. The recent trad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microcosm of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and

there are many behind the trade war. Reason. The outbreak of the U.S-China trade war is not only an issue of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ut also a political and strategic issue that transcend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It is also a factor in the adjustment of U.S-China economic policies,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rule competition. Among all the incentives, the most fundamental and most important The direct reason is the increasingly close economic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anxiety about American hegemony.

This paper takes the U.S-China trade war as an example, analyzes and contrasts the competition and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ombine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theoretical knowledge to analyze and explai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eyword: United States, 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dispute, The hegemonic cycle theory is put forward